



종이마을 한국학교 연락처 (KLPCS Staff Directory)

교장 : 김명희(Principal)
klpcs@naks.org

교감 : 김영복(A. Principal)
paperculture@waksusa.org

유아 유치부 사랑반
 담임 : 오은주
 부담임 : 이상하

기초 입문반 : 소망반
 담임 : 황금비
 부담임 : 이소영

기초 입문부 : 기쁨반
 담임 : 조한형

기초반 : 인내반
 담임 : 손혜수

초급반 : 믿음반
 담임 : 오새아
 부담임 : 김경아

중급반 : 평화반
 담임 : 김영복

붓글씨 : 이신순

종이접기 지도사범 :
 강티나/박미영

대기교사 : 장정원 /공수정

웹담당 : 조한형

사랑하는 종이마을한국학교 가족 여러분~

벌써 2021년을 마무리하는 12월 말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힘든 2020년 한 해를 보낼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랜
 시간 힘든 상황이 지속될 줄 몰랐습니다.

지난해 3월말부터 1년 반동안 온라인 수업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이번 9월
 가을학기에 대면으로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과 교사들은 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생과 안전에 신경을 써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설레이며 정말 신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체가 모두 함께 모이는 행사를 할 수 없고, 다함께 맘 편히 식사를 할 수
 없어서 소그룹이 시간별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이런 소소함이 큰 기쁨이고 감사인 걸 새삼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은 물론이고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 백신 접종을 하면서 조금은 안심을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알파를 시작으로 베타, 람마, 델타와 오미크론까지 변이
 바이러스들이 줄줄이 생겨나서 세계 각국에 퍼져가면서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각 학교들마다 확진자와 접촉자들이 많아지면서 결국
 가을학기 종강 2주를 남기고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뿐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에 교사들과 학생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익숙해진 온라인 수업 덕분에 한글 수업을 지속하면서
 한국학교 선생님들 친구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상황 가운데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종이마을
 한국학교의 열정과 사랑이 넘치는 선생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부모님들, 대면 수업을
 신나하면서도 온라인 수업에서도 흥미를 잃지 않고 열심히 따라와 주는
 기특하고 착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제는 코로나라는 상황에 불안해하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면 가능한 안전한 상황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야겠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이전보다 더 활기찬
 종이마을한국학교가 되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연말 연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새학기 첫 날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종이마을한국학교
 교장 김명희드림

2021년 가을 학기 입학식

드디어 대면 수업 시작!

2021년 9월 9일, 일 년 반 동안 화상으로밖에 만날 수 없었던 우리 학생들을 실제로 만나게 되어 너무 기쁜 하루였습니다. 학생들의 밝은 모습과 학부모님들의 흐뭇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건강하게 한 학기 잘 마무리 하고자 첫 걸음을 디뎠습니다.





한 국 문 화



대한민국 3대 명절 한가위

한국음식 및 전통놀이 체험

- ❖ 송편 시식
- ❖ 딱지 접기
- ❖ 팽이 접기



매난국죽 - 사군자

매화 국화, 난초, 대나무

서 예



2022 학사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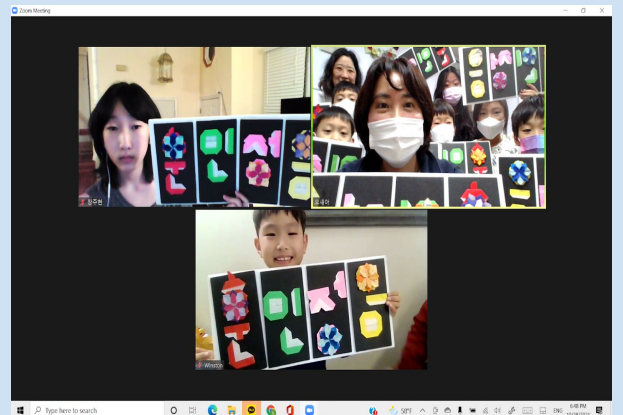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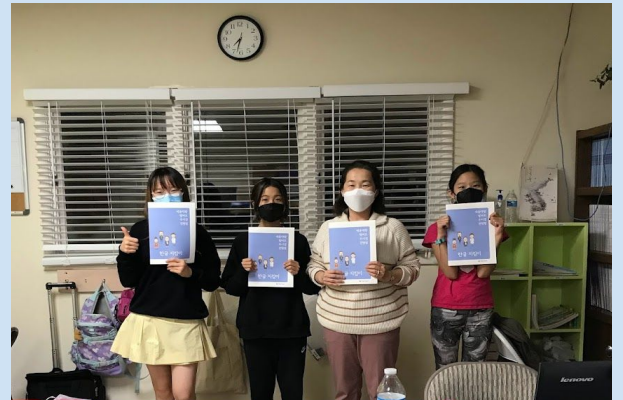
- ❖ 2학기 16주 : 2022년 1월 6일 - 2022년 4월 28일
- ❖ WAKS 말하기 대회 : 2022년 3월 26일, 하상 한국학교
- ❖ NAKS Korean Test : 3월 중
- ❖ WAKS 낱말경연대회 : 2022년 5월 7일, 펠로십 한국학교



축 하 합 니 다

2021년 재미한국학교워싱턴지역협의회 한글날 행사 공모전

종이마을 한국학교에서는 575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재미한국학교워싱턴지역협의회 한글날 행사 공모전에 참가, 다양한 한글날 활동과 멋진 종이접기 작품을 소개하여 '슬기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한 웹공모전 개인전에 UCC 동영상을 제출한 평화반 조하준 학생이 '으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조하준 (8) UCC 동영상



축 하 합 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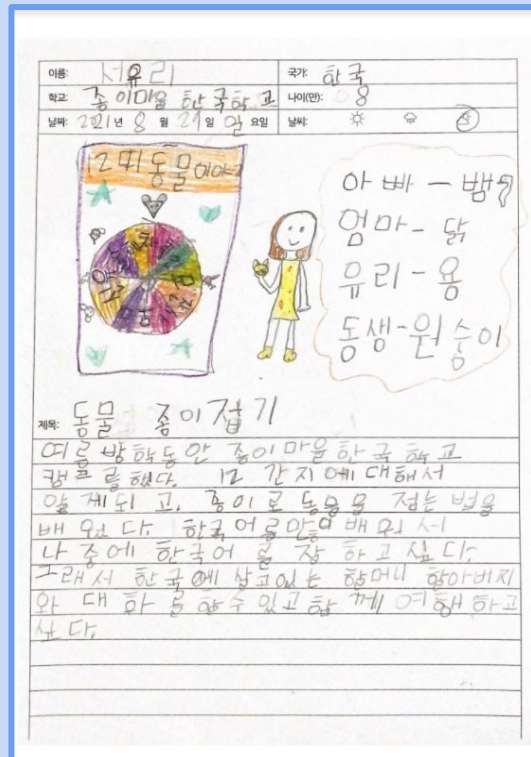
2021
76주년 8.15
광복절 사생대회

메릴랜드 한인회에서 주최한
8.15 광복절 사생대회에서 종이마을의
조예진 학생이 참여하여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예진 (4)

2021
제 3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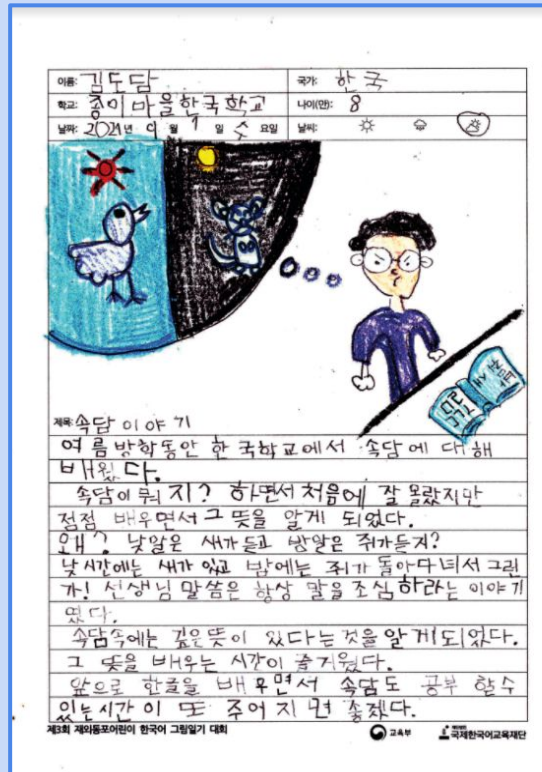
종이마을 김도담, 서유리,
한승우 학생이 대한민국
교육부가 주최하고 국제
한국어 교육재단이 주관하는
제 3회 재외동포어린이
한국어 그림 읽기 대회에
참여하여 격려상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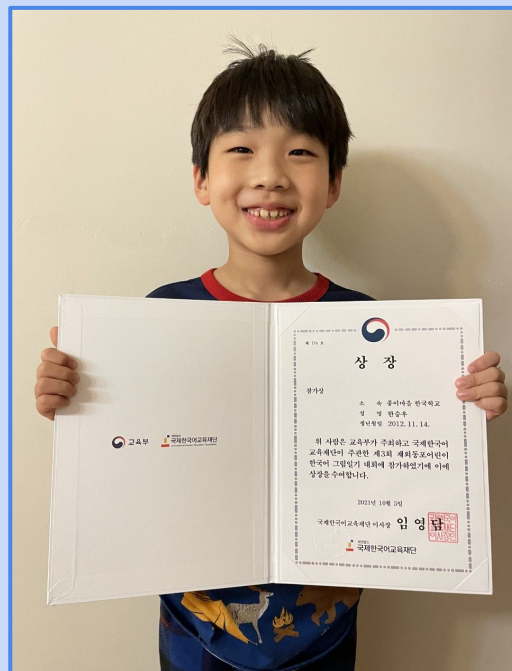
서유리 (3)

축 하 합 니 다

2021 제 3회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김도담 (3)



한승우 (3)

축 하 합 니 다

그림그리기



우수상
임재원 (3)



장려상
조성안 (2)

제 20회
재미한국학교 워싱턴지역협의회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에서
7명의 종이마을 한국학교 학생이
참석하여 맘껏 실력발휘를
했습니다.

짧은 글짓기



장려상
조예진 (4)



장려상
권순지 (7)



우수상
조하준 (8)

2021
제 20회 WAKS
그림그리기
글짓기 대회



편지쓰기

장려상
김호린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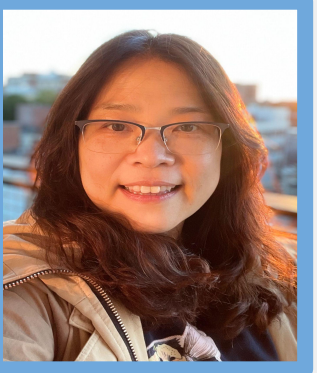
선생님 한마디 ~~



교감 김영복

종이마을 가족여러분들께,

가을 학기가 시작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14주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듯 합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대면 수업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현장에서 많이 힘드셨을 종이마을 한국학교 선생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2주를 남겨두고 코비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마감하면서 참 아쉬웠고 1월 2월을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라 학부모님들이 힘드실 것을 알기에 참으로 힘든 결정이었으나 '돌다리도 두드려가라'고 힘든 시기 조금씩만 인내하면서 추운 겨울 최대한 안전하게 보내고 3월에 모두 다시 대면으로 볼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 학생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아자 아자 파이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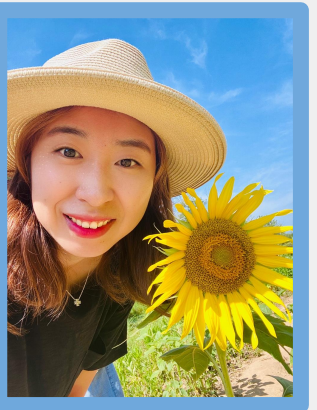


사랑반 오은주

안녕하세요,

2021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네요. 지난 여름, 온라인 여름 캠프로 종이마을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캠프를 준비하며 학생들을 향한 열정이 특별하신 교장, 교감 선생님을 뵈고 놀랐는데, 학생들의 출중한 실력과 어머님들의 지지에 더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종이마을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글학교를 처음 접하는 가장 어린 아이들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해 나가고 있어요. 1-2월 온라인 수업이 저희 반에서는 특히 아쉽고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가족들과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내시고 새해에 힘차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반 이상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부족하지만 사랑반 보조교사로 섬길 수 있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 사랑반 친구들과 함께 한글공부와 더불어 종이접기, 붓글씨 등 특별활동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사랑반 친구들이 밝은 얼굴로 매주 출석하며 조금씩 한글실력도 늘고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열심히 따라와 준 사랑반 친구들 참 수고 많았고 또 아이들의 한글공부를 위해서 옆에서 누구보다 힘써주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협조해주신 학부모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겨울 방학 동안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고 봄학기에 기쁘게 만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 한마디 ~~



믿음반 오새아

비록 마스크에 감춰진 작은 얼굴들이었지만 직접 얼굴을 보며 장난치고 깔깔대고 웃던 우리 아이들의 환한 얼굴들이 생각납니다. 한 학기동안 서로의 따뜻한 온기 속에 새로운 추억들을 만들어 가며 소중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맞춰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어 못 만나는 아쉬움은 있지만 다시 만날때까지 우리 믿음반 각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고 늘 보호하심 속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길 기도합니다.



믿음반 김경아

Parents and Students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올 한 해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지날수록 소중하다는 걸 느낍니다.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도 많은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내반 손혜수

힘든 팬데믹 동안 인내반을 지도하며, 부족했지만 아이들이 열심히 적응해 가는 모습에 힘을 내서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비대면 대면수업을 동시에 가르치며 또한 모두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에 임해야하는 불편함을, 아이들 모두 잘 따라와 주어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인내반은 평균 반 이상이 영어권 가정의 학생들이었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수업에도 모범적으로 참여하였고 또한 부모님들의 수고로 아이들 모두 무사히 가을학기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봄학기 또한 비대면 수업으로 시작하지만 우리 인내반 학생들은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잘 따라와 줄 것을 믿기에 좀더 힘을 내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적응하고,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했던 아이들의 얼굴을 마스크 밖으로 볼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인내반 모두 너무 수고했고, 부모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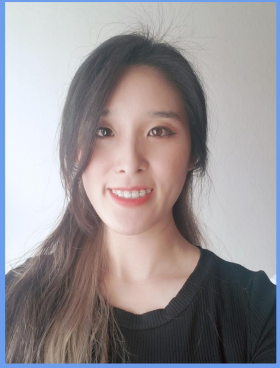
선생님 한마디 ~~



기쁨반 조한형

안녕하세요,

이번 가을학기에 기쁨반 담임교사를 맡아 빛나는 우리 학생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에겐 매주 목요일은 저를 설레게 하고 힘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기쁨반 학생들을 만나서 같이 한글 수업을 하고 재밌는 게임과 종이접기를 하면서 같이 즐겁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글학교 가을학기 종강식을 맞이하여 마지막으로 한 학기동안 배운 수업들을 총 복습하면서 학생들이 짧은 기간 동안 한국어 실력이 많이 발전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뿌듯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교사이지만 한 학기동안 잘 따라와 준 우리 기쁨반 학생들, 그리고 자녀분들이 최대한 결석하지 않고 잘 배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신 학부모님들,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글을 재밌게 잘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망반 황금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그런데도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참석해 준 학생들이 있어 너무 즐겁고 감사한 한 학기를 보냈습니다! 특히 비대면으로만 보던 학생들을 대면으로 만날 수 있어서 이번 학기는 더욱더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어느샌가 온도도 많이 낮아지고 쌀쌀한 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학생들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게 방학을 보내다 봄 학기에 다시 만나요!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동안 수고해 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있어 매주 설레는 마음과 기대를 품고 친구들을 만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방학 동안에 쉬면서도 한글과 한국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길 바라며 다음 학기엔 더욱더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요~



소망반 이소영

올해 처음으로 한글학교를 섬기게 되었는데 여러모로 참 좋은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는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성장할 수도 있지만, 한국학교라는 곳을 통하여 한국 역사와 문화, 한글에 대해 알아가며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참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종이접기, 붓글씨를 통하여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생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가정 어린이와 느린학습자를 위한 디지털 라이브러리로 쉬운 한국어책과 여러나라말 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http://xn--hu1b40go5ck8x.com/>



엄마가 직접 만든 무료프린트 학습지
엄마와 아이의 재미있는 놀이공간 편람

<https://funmom.tistory.com/>



가을학기 종강 동영상

특별 감사

가을 학기 동안에 학교 물품과 선생님과 학생들의 간식과 식사를 제공해 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말씀드립니다.



1011 Maple Ave. Rockville, MD 20851
240 252 9596